

1997년 국제유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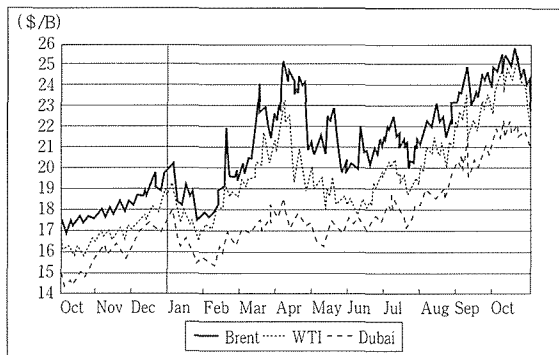
- 에너지경제연구원 -

1. 1996년 개관

- 1990년 걸프전 시기 이후 최고의 유가수준을 시현. 이라크 원유 수출재개의 진전과 연기, 석유사들의 낮은 석유재고 전략, 선물시장에서의 강한 *Backwardation* 상황의 지속과 무기수요 확대 등 제반 요인의 상호영향으로 원유가 연말까지 강세 기조 유지.
- 1월 이라크의 UN 결의안 986호(이라크 석유 부분 수출 허용계획) 수용 발표, 5월의 실무협상 타결, 9

- 월초 이라크군의 북부 쿠르드지역에 대한 군사행동으로 유엔계획의 일시 중단, 11월말 이라크에 의한 유엔조건의 수용, 12월 10일 석유 수출 재개
- 석유사 경영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정유부문 재고비용 절감을 위한 최소재고전략 (*Just in time storage strategy*)이 채택되어 특히 미국과 유럽지역 재고 감소가 두들어짐
- 이라크 원유 수출 재개의 예상밖 지연, 중동지역 불안요인 상존, 석유수요의 증가와 비OPEC 공급 증가 제약, 낮은 재고 등의 영향으로 선물시장에서 *Backwardation* 상황 지속되었으며, 투기수요가 확대되어 유가 상승을 유도

〈그림-1〉 '96년 현물유가 추이



2. '97년 석유시장의 변화요인과 전망

(1) 세계경제, 고성장 전망

- 미국, 일본 등 OECD 선진국의 견실한 성장세와 개도국의 지속적인 고성장, 동구권 등 체제전환국들의 본격 성장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는 4.0% 내

- 외의 성장 전망
- 미국 경제 현 경기상승 국면 지속, 일본은 본격 경기회복 전망 등 선진국의 물가 및 금리안정으로 년 2.5% 안정성장 전망(IMF)
 - 개도국은 특히 아시아지역의 경우 구조 조정기에 들어가 연 8% 성장으로부터 다소 둔화된 6%~7% 수준의 실질성장 전망. 중남미국기들의 경우, 개방화 및 자유화 정책의 영향으로 경제의 효율성 제고 '97년에는 4%~5% 수준 성장 전망
 - 체제 전환국의 경제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구국가와 발트 3국의 경제는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지만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의 경제는 다소 둔화 예상(EBRD).

〈표-1〉 1997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

	1995	1996(추정)		1997(전망)	
		IMF	WEFA	IMF	WEFA
세계	3.4	3.7	2.7	4.2	3.2
선진국	2.1	2.1	2.2	2.5	2.4
-미국	2.0	2.4	2.2	2.3	2.4
-일본	0.9	3.5	3.8	2.7	2.2
-EU	2.5	1.6	1.5	2.5	2.5
개도국	5.8	6.0	-	6.2	-
-아시아	8.4	7.7	6.6	7.6	6.4
체제 전환국	-1.4	0.4	4.6	4.0	4.4

〈자료〉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6. 10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6. 8

(2) 이라크 석유수출 재개와 지속성

- 지난 12월 10일 금수 6년만에 이라크 수출 재개가 이루어졌음. 향후 180일동안 20억달러 규모의 원유수출 허용
- UN프로그램은 이라크와 미국의 대립으로 당초 예상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임.

원유 수출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이라크에 대한 UN의 경제 제재가 완전히 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허가 기간인 180일 이후 UN 프로그램의 지속성 여부가 주목됨.

- 이라크 정부는 프로그램의 연장을 추구하면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하여 UN 경제제재의 완전 해제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무력행동을 통한 정치적, 군사적 대립은 가능성이 낮을 전망이다.
- 이라크가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는 한, 동일한 수준의 UN프로그램 추가 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1997년 하반기에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UN의 논의도 진일보할 것으로 예상됨.

(3) 석유재고 전략의 변화

- 석유사의 최소재고 전략은 정유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편사업의 일환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불가함. 그러나 1996년의 상황은 이라크 원유 수출 재개 지연과 시장에서의 Backwardation 지속으로 인하여 그 영향이 증폭된 것으로 해석됨.
- 현재의 낮은 재고수준 때문에 1997년 1/4분기중 사건, 사고로 인한 수급차질 발생의 가능성은 높은 편임. 따라서 정유공장 화재나 파업, 유전 사고 등 작은 사건이라도 유가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그러나 이라크 석유수출 재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석유시장이 정상시장으로 회복된다면, 2/4분기 이후 예년과 같은 재고구매가 이어져 하반기에는 점차 재고수준으로 인한 가격 등락의 영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4) 중동의 정세불안 요인 상존

- 회교원리주의 세력의 준동, 미국의 대이란/리비아 경제제재 지속에 따른 미국과의 정치적 긴장상태

지속, 최대 산유국 사우디 왕가의 정권 교체를 앞둔 후계문제와 왕정체제에 대한 사회불안, 쿠르드족 종족내의 대립 등.

-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내각 출범 이후 중동평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음도 중동지역의 불안 요인의 하나임.
- 이들 불안 요인은 단기적 해결책은 갖고 있지 못하면서 사태가 악화될 경우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을 가중시켜 석유시장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1997년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사태발생의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예상된다.

(5) 선물시장의 투기거래 확대

- NYMEX 등 선물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선물시장 가격이 현물거래 가격을 선도하는 상황이 일반화되고 있음. 특히 정치, 경제적 사건의 영향으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 확산이 예상될 때 투기수요가 가세되어 가격 변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음.
- '96년중 이라크의 군사적 동향이나 수출 재개의 불투명성, 석유사의 낮은 채고 등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으며, 그 결과 선물시장에서의 투기 수요 확대로 이어짐.
1997년에도 이와 같은 투기수요 확대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6) OPEC 산유량 정책의 변화

- 이번 101차 총회에서 OPEC는 현행 산유량 상한(2,503만3천b/d)의 6개월 연장에 쉽게 합의하고, 쿼터 위반에 대한 문제는 논의되지 못하였음.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OPEC의 초과 공급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 내년 6월로 예정된 총회에서는 상반기 석유시장

변화를 근거로 산유량 정책의 변경여부를 결정할 것이지만, 석유가격의 급락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감산 등 극단의 조치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1997년 하반기에 OPEC은 쿼터 초과 생산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새로운 전략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6월 총회에서 쿼터 초과국에 대한 제재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론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현재의 초과공급 상황 지속 전망

3. 세계 석유수급 전망

- '97년 세계 석유 수요는 '96년보다 190만b/d 늘어난 7,370만b/d로 전망(IEA)되며, 공급은 년평균으로 약 110만b/d의 초과공급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됨.
- OECD 수요 증가분 60만b/d(1.5%), 비OECD 증가분 130만b/d(4.2%)
- 비OPEC공급은 4,560만b/d로 '96년 대비 190만b/d의 증가 전망(IEA). 이는 수요증가분의 대부분을 비OPEC 증산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북해 신규유전의 본격 가동과 아프리카, 구소련 등에서의 증산활동을 반영.
- OPEC 원유수요(Call On OPEC)는 연평균 2,530만b/d 전망되며, 최대 2,660만b/d(1/4분기), 최소 2,400만b/d(2/4분기) 예상. 반면 OPEC의 생산은 현 수준(약 2,600만b/d)의 초과생산 공급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라크의 수출 재개로 약 55만b/d-65만b/d의 공급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
- OPEC 공급 시나리오에서 이라크 원유의 수출 재개는 1차 허용기간 만료후 연말까지 연장되는 것

〈표-2〉 세계 석유수급 밸런스

(단위 : 백만 B/D)

	1996			1997				
	3/4	4/4	평균	1/4	2/4	3/4	4/4	평균
수요	70.8	73.8	71.8	74.7	71.7	72.6	75.8	73.7
OECD	40.8	42.0	41.1	42.5	40.3	41.4	42.7	41.7
비OECD	30.0	31.8	30.7	32.3	31.4	31.2	33.1	32.0
공급	71.8	73.7	72.1	74.6	74.1	74.3	76.1	74.8
비OPEC	43.2	45.0	43.7	45.4	44.9	45.2	46.9	45.6
OPEC	25.9	26.0	25.8	26.5	26.6	26.3	26.3	26.4
(NGL)	2.7	2.7	2.6	2.7	2.8	2.8	2.9	2.8
재고변동	+1.0	-0.1	+0.3	-0.1	+2.6	+1.7	+0.8	+1.1

〈자료〉 IEA, Oil Report, 1996. 11

〈주〉 OPEC 공급에서 「·」는 이라크 수출계개 시기, 「..」는 동 조치의 연장을 가정

을 가정. 하반기 이후 쿼터 초과 생산국 제제 영향을 예상.

4. '97년 원유가 전망

- 앞의 예상되는 수급 상황에서 이라크의 석유 수출 재개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석유사들의 낮은 재고상황이 동절기 동안의 기후 및 사건, 사고와 맞물리면서 가격 강세를 유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96년 연말 가격수준에서 배럴당 1달러 수준의 가격 하락 전망

- 그러나 2/4분기에는 최소 2백만b/d 이상의 초과공급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라크의 부분수출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3/4분기에도 큰 폭의 공급초과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2/4분기중 석유사들의 본격적인 재고구매가 예상되는 초과공급의 상황을 부분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전망이지만 원유가의 약세 반전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 1/4분기 대비 배럴당 3달러 내외의 가격 하락 요인

발생

- 하반기 특히 3/4분기에는 6월의 OPEC 총회에서 상반기에 대한 평가 이후 OPEC의 산유량 정책의 변화와 이라크 원유의 부분 수출의 연속성 여부가 시장내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OPEC의 초과 생산국에 대한 제재방안이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라크는 같은 수준의 부분 수출 추가 허용 가능성이 높을 전망.
- 2/4분기 대비 배럴당 1달러 내외의 상승과 보험 전망
- 연말 유가는 Dubai 19.00달러 WTI 22.50달러 수준 수렴

〈표-3〉 국제 원유가 전망

(단위 : \$/B)

	1996. 4/4 (추정)	1997년(전망)				연평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Dubai	21.00	20.00	17.50	18.00	18.50	18.50
WTI	24.10	23.50	21.00	21.50	22.00	22.00